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경험이 지역공동체 의식형성에 미치는 영향: D 광역시 아파트 작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Volunteering Experience in a Small Library Within an Apartment Complex on the Sense of Community: A Case of Apartment Small Libraries in D Metropolitan City

이아영 (Ayoung Lee)**

이성신 (Seongsin Lee)***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과정을 질적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D 광역시 DS 구에 있는 5개 아파트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33명의 봉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시작은 본인이 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되어서 도서관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고 동시에 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그들은 지역주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게 되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인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경험은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volunteering experience at a small library in an apartment complex on the formation of a sense of community through a qualitative method.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thirty-three volunteers from five small libraries in an apartment complex in DS-gu at D Metropolitan City were interviewed.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y started volunteering at the libraries as a main user of the libraries. Through the volunteering experience, they had positive feelings about the libraries and were aware of the problems with the libraries. Furthermore, the volunteering experience facilitated communication among the residents of the apartment and they recognized the libraries as a shared community space. Finally, through the above processes, the volunteering experience contributes to forming a sense of community.

키워드: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자원봉사활동경험, 질적분석,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의의식
small library in an apartment complex, volunteering experience, qualitative analysis, local
community, sense of community

* 이 논문은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전공 석사학위논문(2023.08)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dkdud22@hanmail.net)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leess@k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3년 11월 13일 ■ 최초심사일자: 2023년 12월 12일 ■ 게재확정일자: 2023년 12월 14일

■ 정보관리학회지, 40(4), 53-71, 2023. <http://dx.doi.org/10.3743/KOSIM.2023.40.4.053>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파트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거 공간의 모습이다.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시에서는 인구가 급격히 팽창되는 인구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아파트 고밀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전국 여러 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파트가 대중적인 주거 문화가 되면서 아파트 주변 환경에 학교와 시장·어린이 놀이터·조경지역·주차장 등의 사회적 편익 시설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김진성, 성진욱, 양우현, 2018).

현대에 이르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사회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인주의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운동은 정부의 행정적 지원에 힘입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의 삶에서 아파트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단지 내 생활이 주거의 의미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삶의 의미와 같은 포괄적 의미를 지니게 됨으로써 아파트 구성원들 스스로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박민주, 2017). 또한, 아파트 대단지화의 영향으로 1994년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023호)에 따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작은도서관은 거리상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기본적인 도서 서비스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한다. 또한, 아이와 부모의 평생교육과 보육 공간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여주는 지역주민들의 ‘사랑방’으로서 지역공동체성 형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여러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공동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공동체’라는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며,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으로부터 지역, 나라, 세계 심지어 가상공간에서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박병춘(2012)에 의하면, 그중에서 지역공동체란 지리적 근접성, 사람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적인 공동유대감 중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강조되는 공동체로서, 기본단위로 정해진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집단을 의미한다.

‘아파트’라는 집단 역시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생겨난 하나의 공동체라 할 수 있고, 작은도서관은 ‘아파트’라는 공동체 내에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지역공동체성을 형성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아파트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역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아파트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어떤 과정을 거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성을 형성하게 되는지와 관련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파트’라는 공간적 장소를 공유하면서 ‘작은도서관’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지역공동체성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성의 의미를 알아본다.

둘째,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다.

셋째,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전사한 후 질적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넷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알아본다.

1.3 선행연구

현대사회의 주거공간이 변화하면서 작은도서관의 수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대

한 연구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 중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연구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안미경(2011)은 J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설치의 무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조항 또는 제도적 기반과 99.9㎡ 이상의 열람실과 별도의 프로그램실 운영, 전문사서를 채용하여 이용자를 위한 주 40시간 이상의 서비스 제공, 도서운영위원회 및 시민사서 자원활동가 양성 같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박민주(2017)는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이 갖는 특성과 의의를 살펴보고, 청주시내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네트워크, 관련 법령으로 나누어 파악했다. 먼저 운영에 있어서는 작은도서관의 자원활동가들이 아파트 운영주체가 되어 아파트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며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고, 관리 부분에서는 주로 어린이가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장서 선택과 분류작업 및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도를 높이면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고 부족한 인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공립도서관의 업무협력과 업무지원 등의 매뉴얼화,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 및 시민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간의 협력에 대한 체계적

인 방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미비한 법령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함을 언급했다.

김진성, 성진욱, 양우현(2018)은 사립 작은도서관과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최초 설립 취지와 목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하게 운영하려는 운영자로 인하여 혼선을 빚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부와 단절되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입주민을 위한 부대 복리시설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주민수요조사에 따르되, 대단지가 생길 때는 단일 형태가 아닌 거점형 또는 테마형으로 공급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운영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법 개정 및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성신, 성희자, 이세나(2018)는 주거·교육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대구 안심지역의 아띠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는 과정을 질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작은도서관의 차별화된 역할을 새롭게 제안했다.

조윤희(2012)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도서관과는 차별화를 지닌 지역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는 순천, 부천, 창원, 대구의 지방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 운영사례를 조사했다. 연구 결

과,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운영 모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서관, 배움을 위한 공동체 공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을 지역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노영희, 최만호, 김윤정(2021)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사례분석 및 작은도서관에 관한 인식조사를 했다. 작은도서관의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동아리의 커뮤니티 공간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공동체 인식 개선에 대한 작은도서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정책에 대한 표준모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재희(2021)는 지역도시발전을 위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작은도서관을 언급하며 지역문화시설로서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운영자 관점에서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 추진은 어렵다고 했으며 정책적인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중심의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2.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식

공동체의 사전적 정의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질 의사에 의하여 결합된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사회를 의미하며, 지역공동체의 사전적 정의는 한 지역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연(地緣)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생활 공동체이다.

이러한 의미의 지역공동체란 물리적인 공간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사회적으로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공동의 목표 또는 가치의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사회적인 조직이며, 그중 지리적 근접성이 강조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박병춘, 2012, 14). 지역공동체를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 행정구역, 지역커뮤니티 등 비슷한 의미의 여러 단어로 부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지역공동체의 공동체 구성요소 중 지리적 요소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곽현근(2012)은 일정한 지리적 범위 안에 상호협력하며 살아가는 주민들과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또는 심리적인 유대감을 지역공동체라 정의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과 일정한 지역에 대한 경계를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만약 지리적 경계를 행정구역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작게는 마을 단위부터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이성신, 성희자, 이세나(2018)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지역주민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단위를 지역공동체로 정의하며 일정한 지역의 경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정도로 정의하였다. 성희자, 전보경(2006, 153)은 이러한 세 가지 요건 중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서로 공동의 유대감에 대한 심리적인 특징이 나타날 때 지역공동체의 용어로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정서적인 유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역공동체라는 개념은 지역사회의 지리적 근접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유대감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칭할 수 있다. 즉 지역공동체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의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대가족 중심의 혈연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가족의 의미가 단순해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살아가는 터전에 대한 의미 또한 단순해졌음을 뜻한다.

지역공동체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함과 동시에 함께 오는 물리적·외부적 요인이 되고, 내부적 요인이 되는 것은 공동체의 식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같은 지역주민들이 여러 문제에 대하여 함께 참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자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 공동체와 구성원의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적응력, 행복감, 만족감, 삶의 만족도, 직무만족도를 높이며, 주관적 안녕감 등의 긍정적인 영향(정계숙, 박희경, 2019)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에 대한 의미는 함께 생활하며 상호작용하는 집단과 일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집단의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집단의식 또는 사회의식이다. 또한,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연대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등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람들이 조직적 또는 정서적 배경을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구혜영, 2022, 51)로 볼 수 있다. 김수영, 장수지, 문경주(2013)는 지역공동체의 하나의 조직체로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 문화, 협동하는 생활 등 여러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면서 지역공동체를 조직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신념, 공유하는 공간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형성되는 것을 공동체의식이라 정의하였다. 이라영, 신남수(2009, 225)는 개인이 공동의 운명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전제하에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대의식을 갖게 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결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계가 되고자 함을 공동체의식이라 하였다.

3.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 현황

작은도서관은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개인 및 민간단체, 법인, 새마을문고, 종교시설, 아파트 등으로 나누어진다. <표 1>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설립 주체별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을 재구성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2023).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1991년 건설부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후, 1994년 12월 제55조 5항에 신설되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복지시설’로서 문고(文庫)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지만, 대부분 아파트에서 문고가 아닌 ‘독서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에 건설된 아파트들은 대체로 1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이러한 아파트의 경우 작은도서관보다는 ‘독서실’로 운영된 공간의 흔적을 찾기가 훨씬 쉽다. 이에 정부는 2006년 1월에는 문고의 설치의무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을 강화하였다. 이후 2009년 12월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

<표 1> 연도별 사립 작은도서관 설립 주체별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관수	%	관수	%	관수	%	관수	%	관수	%
개인 및 민간단체	1,298	27.9	1,342	27.4	1,417	27.3	1,383	27.8	1,413	28.6
새마을문고	368	7.9	368	7.5	356	6.8	330	6.6	309	6.3
종교 시설	1,155	24.8	1,196	24.4	1,261	24.3	1,161	23.4	1,081	21.9
법인 설립	270	5.8	264	5.4	270	5.2	291	5.9	295	6.0
아파트 작은도서관	1,560	33.6	1,727	35.3	1,891	36.4	1,805	36.3	1,838	37.2
합계	4,651	100	4,897	100	5,195	100	4,970	100	4,936	100
전체 작은도서관	6,058		6,330		6,672		6,474		6,448	

되었고, 2013년 작은도서관은 '주민공동시설'로 편입되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각각의 아파트 관리규약을 바탕으로 조직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의 일부로서 공동관리비로 운영되는 재산적 가치의 공유공간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도서관'이라는 공공성의 개념과는 대립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과는 달리 일부의 의지로 만들어진 도서관이 아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 그리고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과는 다른 특이성이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에 배치된 인력이 전문성이 부족한 자원봉사자들로 주로 구성되어 도서관이 운영됨에 따라 도서 구입, 인력, 재정,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과 달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독서 생활을 위한 공간 및 생활 친화적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4. 연구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4.1 데이터의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인 D 광역시의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DS 구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23 개관(33.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D 광역시의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중 DS 구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DS 구는 D 광역시에 있는 8개의 구·군 중에서 인구의 수도 많지만, 인구의 규모만큼이나

<표 2> 2021년 D 광역시 아파트 작은도서관 현황

구분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수	비율
N구	-	-
DS구	23	33.8
D구	16	23.5
B구	14	20.6
S구	1	1.5
SS구	3	4.4
J구	1	1.5
DS군	10	14.7
전체	68	100

아파트 단지의 수도 가장 많은 거대 자치구이다. 특히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도 D 광역시에 서 가장 많은 자치구이며,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역시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 광역시 전체 작은도서관의 비영리단체인 '○○작은도서관협의회' 외 D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작은도서관 비영리단체가 있는 자치구이기도 하다. DS 구의 작은도서관 비영리단체인 '○○작은도서관연합회'는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아파트 작은도서관만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을 D 광역시의 거대자치구인 DS 구로 한정하고, 23개 관의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연합회'에 소속된 아파트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은 ○○작은도서관연합회 소속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5개 관의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이며,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21일간 인터뷰를 진행했

다. 인터뷰는 <표 3>의 가이드 질문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질문을 덧붙이거나 생략하는 방식의 비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을 활용했다. 가이드 질문은 도서관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위 기간에 각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원봉사자 33명과 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각 인터뷰에는 대략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 대상 5개 도서관의 일반 현황과 도서관별 참여인원수는 <표 4>와 같다.

인터뷰는 면담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후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4.2 데이터의 분석

본 연구는 전사된 인터뷰 자료를 세그멘팅, 초기코딩, 심층코딩 그리고 주제의 발견이라는 과정을 거쳐 분석한다. 우선, 세그멘팅은 “어떤

<표 3> 가이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자원봉사로써 어려웠던 점 혹은 보람이 있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 작은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들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작은도서관이 입주민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작은도서관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등

<표 4> 연구 참여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인터뷰 참여 인원

구분	건물면적	열람석	도서자료	연속간행물	인터뷰 참여인원 수
A작은도서관	70.9㎡	26	10,380	25	6
B책마루도서관	191㎡	60	17,710	7	11
C도서관	154㎡	52	14,747	11	7
D도서관	195㎡	60	12,581	5	4
E도서관	208㎡	64	9,596	2	5

자료에서 그 자료의 의미나 요지가 잘 드러나 있는 문장 또는 문장에서 추후 코딩을 위하여 괄호를 넣거나 줄을 긋는 작업을 의미한다”(김영천, 2012, 532). 세그멘팅은 이후의 코딩과정을 위한 첫 번째 분석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세그멘팅은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에서 연구목적에 비추어 의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별해내는 과정이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답변 내용에는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초기코딩이라고 한다. 이러한 초기 코딩과정은 1차 혹은 2차 코딩이라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데이터에서 더 이상의 의미가 나오기 힘든 포화상태(saturation)가 될 때까지 진행하여 최대한의 의미를 도출해야 질적분석을 통한 분석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심층코딩이란 위의 초기코딩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 중 같은 범주(category)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것을 같은 범주로 즉 주제별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제의 발견이란 심층코딩과정에서 발견된 주제

간의 관계성을 발견해내는 과정으로 이러한 주제의 발견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통찰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그멘팅, 초기코딩, 심층코딩, 주제의 발견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4.2.1 세그멘팅 및 초기 코딩 결과

우선 인터뷰 대상자의 연령 및 직업은 <표 5> 및 <표 6>과 같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주 이용계층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여성이 많다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이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자원봉사자는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인터뷰 자료에 대한 세그멘팅 및 1차 초기코딩 과정의 예이다.

<표 5> 연령별 분포

구분	봉사자 수(N)	비율(%)
20대	1	3
30대	3	9.1
40대	17	51.5
50대	12	36.4
60대 이상	-	-
합계	33	100

<표 6> 인터뷰 대상자의 직업

구분	봉사자 수(N)	비율(%)
주부	25	75.8
직장인	5	15.2
기타	3	9.1
합계	33	100

Q) 작은도서관의 서비스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일단 단지 안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 **가까운 곳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도서관이라 하면 보통 거리가 있다 보니까 차를 타고 나가지 않으면 책을 빌릴 수 없잖아요. 특히나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처음 입주할 때는 거의 허허벌판이었어서 도서관이 없었다면 **아파트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걸 상상도 못 할** 거 같아요.

Q) 작은도서관이 입주민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도서관에 오면 **여러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아이들도 만나게 되니까** 오래 살아도 이웃끼리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또 행사나 이벤트를 하면 **참여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여하고 있는 거 맞겠죠?

Q) 작은도서관이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 **이웃들을 이어주는 역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카페나 이런 것처럼 아는 사람끼리 가는 장소는 아니지만, 오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옛날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요.

[메모:168] user 2023-07-21 10:52
 접근성이 좋음
 책을 볼 수 있어서 좋음

[메모:169] user 2023-07-21 10:52
 입주민들과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음

[메모:170] user 2023-07-21 10:53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됨

[메모:171] user 2023-07-21 10:53
 오래 아이들을 만나게 됨

[메모:172] user 2023-07-21 10:54
 행사 참여를 통해 이웃과 친밀해짐

[메모:173] user 2023-07-21 10:54
 도서관이 이웃들과 가고 역할을 함

[메모:174] user 2023-07-21 10:54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 역할

〈그림 1〉 세그멘팅 및 1차 초기코딩 과정 예시

1차 초기코딩과정을 통해 260개의 코드(단어 혹은 어구)가 발견되었다. 1차 코딩을 통해 발견된 코드들을 다시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코드들끼리 묶은 후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 혹은

어구를 부여하는 2차 초기코딩을 통해 107개의 코드를 발견하였다. 〈표 7〉은 2차 초기코딩을 통해 발견된 107개의 코드 중 일부이다.

〈표 7〉 2차 초기 코딩 중 일부

번호	2차 초기 코딩 코드
1	책에 대한 대화를 함
2	찾아가기 쉬운 도서관
3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4	다른 주민들을 만남
5	주민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짐
6	도서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
7	다양한 이벤트가 있음
8	편안한 곳
9	운영진이 적음
10	접근성이 좋음
11	책을 빌려봄
12	양질의 수업이 있음
13	저렴한 비용으로 수업참여가 가능함
14	소통의 장
15	자녀들끼리 친해짐
16	도서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됨
17	주민들이 서로 알게 됨
18	도서관이 사랑방 역할을 함
19	주민들과의 관계가 좋아짐
20	도서관은 추억의 장소임

4.2.2 심층코딩 및 주제의 발견 결과

2차 초기코딩 과정을 통해 발견된 107개의 코드를 다시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끼리 묶는 심층코딩을 통해 <표 8>과 같이 31개의 범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심층코딩 결과 발견된 코드들을 유

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끼리 다시 묶는 범주화 작업을 통해 <표 9>와 같이 11개의 범주를 발견하였으며, 이들 11개 범주 간의 관계 혹은 연계성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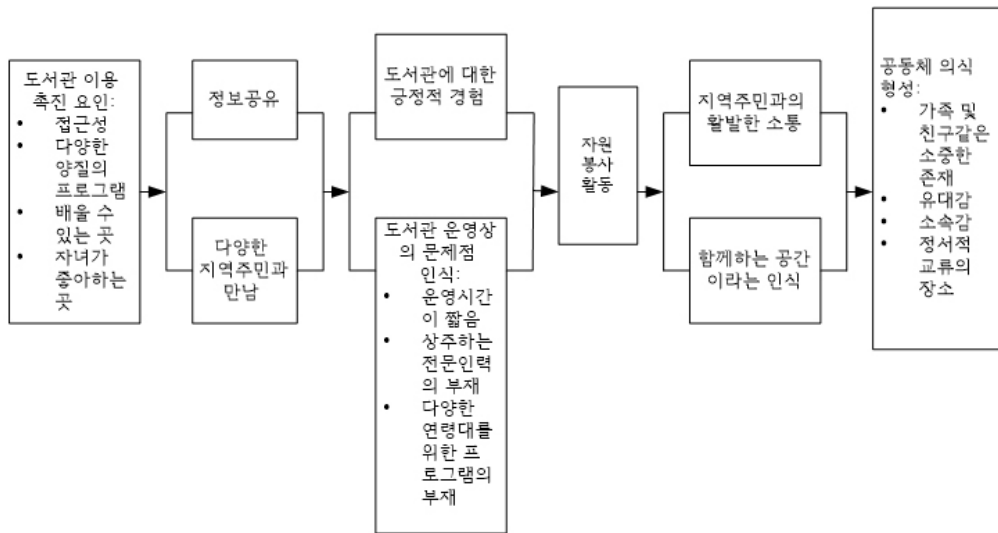
<표 8>에서 나타나듯, 주제의 발견과정을 통

<표 8> 심층 코딩 결과

번호	심층 코딩 코드	2차 초기 코딩 번호
1	다양한 지역주민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4, 17, 31, 42, 43, 56, 93
2	다른 주민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짐	5, 18, 21
3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짐	1, 11, 20, 26, 32, 51, 57, 58, 63, 78, 80
4	다른 가정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생김	27, 44
5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곳	41, 48, 53
6	접근성이 좋음	2, 10
7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음	3, 7, 12, 13, 59, 64
8	사랑방 같은 곳	14, 19, 37, 65, 81, 96
9	지역사회 적응이 수월해짐	23, 90
10	공동육아의 장소	46
11	가족 같은 곳	50, 95, 104, 105
12	친구 같은 곳	49, 106
13	우리 도서관이라는 인식	67
14	소중한 존재	28, 76, 77, 82, 85, 101
15	배움터	35, 38, 39, 52, 75, 79
16	정보공유의 장소	45, 47, 83
17	안식처	8, 25, 54, 67, 71, 72, 84, 102
18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	15, 29, 44, 70, 87, 89
19	공동체 활동의 공간	55, 94, 100
20	공동체라는 유대감이 생김	86
21	소속감이 생김	16, 103
22	자녀가 좋아하는 도서관	34, 88, 98
23	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	51, 97
24	운영시간이 짧음	60
25	상주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함	9, 62
26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6
27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	30
28	삶의 원동력	24, 33, 66, 74, 92, 107
29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곳	36, 54
30	추억의 장소	22, 99
31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69

〈표 9〉 주제의 발견

구분	주제	심층 코딩 번호
1	정보공유	16
2	도서관 이용 촉진요인	6, 7, 15, 22
3	다양한 지역주민과 만남	1, 4, 9
4	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점 인식	24, 25, 26, 31
5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2, 9
6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인식	8, 10, 18, 19
7	소속감	13, 21
8	유대감	20
9	정서적 교류의 장소	17, 29
10	가족 및 친구 같은 소중한 존재	11, 12, 14, 30
11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경험	3, 4, 23, 28



〈그림 2〉 주제 간의 관계

해 다음과 같은 11개의 주제가 발견되었다: ‘정보공유’, ‘도서관 이용 촉진요인’, ‘다양한 지역주민과 만남’, ‘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점 인식’,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인식’, ‘소속감’, ‘유대감’, ‘정서적 교류의 장소’, ‘가족 및 친구 같은 소중한 존재’,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경험’ 또한, 주제의 발견은 심층 코딩을 통해 발견된 주제 간의 관계성을 발견하

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계성의 발견은 전사된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주제 간의 관계성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림 2〉를 통해서 발견된 주제 간의 관계를 통해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경험이 공동체 의식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5. 분석결과 및 논의

우선,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에서의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스스로가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는 이용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도서관까지의 접근성이 좋고, 자녀가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되면서 해당 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까운 곳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도서관이라 하면 보통 거리가 있다 보니까 차를 타고 나가지 않으면 책을 빌릴 수 없잖아요.” (인터뷰 대상자 1)

“집에만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 까 그냥 슬리퍼 신고 모자 대충 쓰고도 아이들과 재밌게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아요.” (인터뷰 대상자 4)

“도서 대출만 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주민복합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대상자 7)

“일단은 독서는 프로그램이든 뭔가 참여하게 되면 도서관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과 만나게 되고.” (인터뷰 대상자 7)

“원래 도서관 문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이벤트나 이런 게 많다보니 도서관을 이용하는 거에 좀 편해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대상자 11)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문화강좌나 평생학습 수업 같은 것을 질 좋은 수업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입주민들한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인터뷰 대상자 15)

둘째, 위에서 언급된 자원봉사자들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는 요인들로 인해 해당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된 자원봉사자들은 도서관 이용을 통해 다양한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 육아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혹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서관의 충성이용자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도서관을 통해 위와 같은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과 동시에 도서관이 지닌 운영상의 문제점들 역시 인지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때 주로 도서관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게 되는 요인들로는 도서관의 운영 시간이 짧아서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이용자가 있다는 점, 상주하는 도서관 전문인력이 없어서 운영의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도서관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층과 정보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과 문제 인식은 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된 이들에게는 도서관을 위한 봉사활동을 결심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답변 예시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 자체가 남이지만, 서로 다 아는 사이가 하나의 그냥 마을이 돼서 공동육아? 내 아이가 이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같이 키워가는 느낌이 들어요. 감시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지켜봐 주니까 그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인터뷰 대상자 20)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22)

“집에 있다가도 책을 반납하거나 대출하려고 밖에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도서관에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아이들 친구들과도 만나게 되고...” (인터뷰 대상자 4)

“아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제별로 프로그램을 한다던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까지 수업을 한다던지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요.” (인터뷰 대상자 22)

“책이 예전에 비해서 종류가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구요. 또 책 정리할 때 어느 서가에 꽂아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또 어.. 이용자들이 한 번씩 원하는 책을 찾아달라고 할 때 진짜 찾아주고 싶은데 저도 어디에 꽂혀있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도 힘들고, 제일 곤란했을 때는 컴퓨터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많이 당황스럽죠.” (인터뷰 대상자 15)

“근데 자원봉사만으로 운영되니까 개관 시간이 라던지 폐관 시간 이런 거에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요일마다도 다르고.. 그게 안타까워요.” (인터뷰 대상자 23)

셋째, 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자들은 일반 이용자의 입장이었을 때보다 지역주민들과 더욱 활발한 소통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적응은 더욱 수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부 봉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자신의 봉사활동 영역을 넓혀가기도 한다. 즉 나에게서 가족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관심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도서관을 다른 누군가의 공간이 아닌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 즉 사랑방 같은 곳, 아이들과 함께하는 곳, 육아를 함께하는 곳, 공동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즉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답변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 봉사를 시작하면서 다른 봉사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봉사가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인터뷰 대상자 3)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방? 만남의 광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오작고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더울 때나 추울 때 도서관에서 많이 만나더라고요.” (인터뷰 대상자 4)

“나는 이사왔을 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음 이 동네에 적응하는 것과 이 동네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 이걸 도서관에서 한 것 같아요.” (인터뷰 대상자 18)

넷째, 위에서 언급된 과정을 통해 자원봉사자

들의 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 의식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서관을 가족이나 친구 같은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며, 지역사회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우리라는 즉 공동체라는 유대감을 갖게 되면서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를 받는 등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을 안식처로 인식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답변 예시는 다음과 같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나만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저의 쉼터 같은 공간이에요.” (인터뷰 대상자 11)

“도서관에 왔다갔다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집에만 있으면 또 그렇게 만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인터뷰 대상자 13)

“도서관에 오면 항상 사람이 있거든요. 도서관에 봉사하는 분들부터가 일단 저희 아파트 입주민이다 보니까 일단 그분들부터 또 이용자 분들도 만나고, 모두 공동의 어떤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해야할까요? 암튼 도서관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일단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터뷰 대상자 30)

“저희 집 같죠. 아이들도 모두 제 자식 같구요.

저희 아파트니까 저희 집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대상자 7)

“음.. 모르던 사람들과 오다가다 얼굴을 익히게 되고 그러면서 친분이 생기기도 하고, 공통분모가 생기면 감정적으로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아파트 사람이 아니라 어.. 이제 나하고 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인터뷰 대상자 10)

“소속감 같은게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봉사도 하고 있다보니까 여기에 속해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대상자 1)

6. 결 론

현대사회에 이르러 아파트는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주거공간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가정을 구성하는 공간이며, 이웃과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기초단위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간이 되었다.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가 획일적인 모습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두르는 담장으로 단지를 형성하여 외부인을 차단하는 폐쇄적인 형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폐쇄적 형태는 입주민들에게는 동질성을 가져옴과 동시에 외부인에게는 차별성을 의미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공동체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대사회에서 '아파트'라는 단지 내 공동생활은 공동체의 구성요소를 가장 잘 갖춘 집단인 동시에 행정구역 이전의 기초단위 지역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에서 아파트공동체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나, 모두 일시적인 운동으로 그치게 되면서 대부분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우연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게 되면서 공동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결속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임석희, 이철우, 전형수, 2003, 318).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속적인 만남과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파트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입주민의 경우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통해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 내에서도 만나게 되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관심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친밀감 형성과 공동체 의식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작은도서관을 매개로 형성된 친밀감을 통해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아가기도 한다. 안미경(2011)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작은도서관의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정서

적 유대관계로 인하여 다른 주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은 도서관을 매개로 다른 지역주민들과 빈번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이어감으로써 정서적 교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결심하게 되는 배경에는 자신들의 작은도서관이 지닌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역시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그리고 해당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경험과 그를 통해 형성되는 지역공동체의식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참 고 문 헌

- 곽현근 (2012). 지역사회거버넌스와 민주성 쟁점들.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2), 3-21.
- 구혜영 (2022). S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영향요인 연구. 시민사회와 NGO, 20(1), 45-79.
- 김수영, 장수지, 문경주 (2013). 신공동체 구축을 위한 시론적 논의.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진성, 성진욱, 양우현 (2018). 서울시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공급과 운영 특성.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1), 71-78. <http://doi.org/10.6107/JKHA.2018.29.1.071>
- 노영희, 최만호, 김윤정 (2021).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5(2), 1-25. <http://doi.org/10.18398/kjlgas.2021.35.2.1>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8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2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박민주 (2017).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청주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박병춘 (2012).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형 및 기본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1-25.
- 성희자, 전보경 (2006). 농촌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7, 149-170.
- 안미경 (2011).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J 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라영, 신남수 (2009).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3), 223-234.
- 이성신, 성희자, 이세나 (2018).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작은도서관: 대구 안심지역의 아띠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77-97.
<http://doi.org/10.16981/kliss.49.1.201803.77>
- 이재희 (2021). 지역문화시설(작은도서관)의 문화적 영향 및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주거환경, 19(2), 175-185.
- 임석희, 이철우, 전형수 (2003). 아파트 주거공간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3), 314-328.
- 정계숙, 박희경 (2019). 예비 특수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공동체 의식 및 불안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2(3), 1-30. <http://doi.org/10.20971/kcpmd.2019.62.3.1>
- 조윤희 (2012). 학술연구: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 모형.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66, 3-2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023호.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An, Mi Kyung (2011). Study on Strategies for Vitalizing Small Libraries: In the Case of "J"

- City's Small Libraries at Apartment Houses.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Cho, Yoon Hee (2012). A study on a model of the small library for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culture. *Digital library*, 66, 3-22.
- Chung, Kai-Sook & Park, Hee-Kyung (2019). Analysis on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interpersonal stress, sense of community and anxiety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Korea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2(3), 1-30.
<http://doi.org/10.20971/kcpmd.2019.62.3.1>
- Gwak, Hyun Gun (2012). A community governance and several issues on democracy. *Journal for the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Conference*, 2012(2), 3-21.
- Kim, Jin-Sung, Sung, Jin-Uk, & Yang, Woo-Hyun (2018). Supply and operation of small libraries inside apartment complexe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9(1), 71-78. <http://doi.org/10.6107/JKHA.2018.29.1.071>
- Kim, Soo-Young, Jang, Soo-Ji, & Moon, Kyoung-Ju (2013). Introductory Study on Building Up a New Communi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Conference*.
- Kim, Youngcheon (2012).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eoul: Academy Press.
- Koo, Hye Young (2022). A study on affecting factors of community consciousness in the S area residents. *Civil Society & NGO*, 20(1), 45-79.
-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2018 National Small Library Operation Survey.
-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3).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2022 National Small Library Operation Survey.
- Lee, Jae-Hee (2021). A study on the cultural impact of local cultural facilities (small libraries) and the promotion of local areas. *Residential Environment: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9(2), 175-185.
- Lee, Ra-Young & Shin, Nam-Soo (2009). A study on the sense of community in apartment complex: focusing on apartment complex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5(3), 223-234.
- Lee, Seongsin, Sung, Heeja, & Lee, Sena (2018). Small libraries as the center of local community: focused on the case of attilibrary.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1), 77-97. <http://doi.org/10.16981/kliss.49.1.201803.77>
- Noh, Younghee, Choi, Manho, & Kim, Yun Jeong (2021).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community based on small librarie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5(2), 1-25. <http://doi.org/10.18398/kjlgas.2021.35.2.1>

- Park, Byung Chun (2012).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communities: focusing on the model and basic policy direction for revitalizing local communities.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0(2), 1-26.
- Park, Min Ju (2017).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Developing Small Libraries at Apartment Complexes.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 Regulations on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etc. Presidential Decree no. 33023.
- Sung, HeeJa & Jeon, Bo Kyung (2006). A study on the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in rural areas. *Journal of Social Welfare Policy*, 27, 149-170.
- Yim, Seok-Hoi, Lee, Chul-Woo, & Jeon, Hyeong-Soo (2003). Restoration of local community based on apartment residential spac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9(3), 314-328.